

불교 박사 대거 배출, 가을 학계 풍성

2013 후기 학위논문 살펴보니

가을을 맞아 불교박사들이 대거 배출됐다. 2013년도 종립대학에서 불교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들은 동국대 5명, 중앙승가대 1명, 동방대학원대 1명, 원광대 1명 등 총 8명이다. 석사의 경우 동국대 12명, 금강대 2명, 위덕대 1명, 중앙승가대 2명 등이 배출됐다.

박사 논문의 경우 일반 교학이 대부분으로 원광대 김갑영 박사의 '플랫폼 구축을 위한 붓다의 설법시스템 연구' 등 비교종교와 응용불교 관련 논문도 각각 1편씩 제출됐다. 석사 논문에서는 동국대 혜교 스님의 '묘공대행의 주인공사상과 관법 연구', 중앙승가대 원경 스님의 '군포교 인력의 전문성 연구', 지성 스님의 '죽음 명상 경험의 질적 분석' 등이 눈길을 끌었다.

먼저 박사논문을 살펴보면 동국대 박사 수경 스님은 '고봉화상선요 연구'를 통해 고봉 스님이 중국 선종사에 기여한 바와 스님의 법어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밝혔다. 수경 스님은 "임제종 제 18대 조사로서 고봉 스님이 조사선 정신을 계승했으며 중국 선종사에서 임제종 위상을 높였다"고 밝혔다. 동국대 박사 여연 스님은 '아뢰아식의 교행적 전개 연구'에서 아뢰아식 사상의

전개를 이론적 연구방식과 함께 수행자로서 체험한 실천적 연구방식으로 새롭게 조명했다.

동국대 이석환 박사는 '공해의 교학사상 연구'를 통해 일본 밀교의 정립자인 공해(774~835) 스님의 생애와 저술을 분석했다. 이 박사는 논문에서 즉신성불의 원리와 십주심체계(十住心體系)를 중심으로 공해 스님의 진언밀교 교학과 종교사상을 규명했다. 또한 공해 스님이 밀교의 대중화를

박사 논문, 일반 교학 분야 대다수 석사 논문 응용불교, 비교종교 강세

이끌었으며 이와 함께 즉신성불과 십주심체계를 통해 진언밀교 교학을 체계화하고 밀교의 수행방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동국대 윤영호 박사는 '설일체유부 극미설 연구'를 통해 인도불교 주류였던 설일체유부의 극미설(極微說)을 정리했다. 극미설은 인식의 대상이 실재하는 것으로 보는 설일체유부 인식론 중 인식의 최소단위를 설명한 것이다. 윤 박사는 극미설이 현대물리학과도 연관됨을 주목했다.

2013년 종립대학 후기 불교 주제 박사학위 논문

이름	논문 제목	대학
아연 스님	아뢰아식의 교행적 전개 연구	동국대
수경 스님	〈고봉화상선요〉 연구	동국대
이석환	공해의 교학사상 연구	동국대
윤영호	설일체유부 극미설 연구	동국대
천정권	보조 지눌과 존 웨슬리의 종교적 구제방법론 비교 연구	동국대
혜력 스님	도작의 (인략집) 연구	중앙승가대
남륜 스님	길장 찬 (법화유의)에 나타난 사상체계 연구	동방대학원대
김갑영	플랫폼 구축을 위한 붓다의 설법시스템 연구	원광대

동국대 천정권 박사는 '보조지눌과 존 웨슬리의 종교적 구제방법론 비교 연구'를 통해 길장 찬 시자 존 웨슬리(1703~1791)의 성화론과 보조지눌 스님의 돈오점수론을 비교분석했다.

천 박사는 보조 지눌 스님은 돈오점수라는 점진적 깨달음을 수행방법으로 제시했고, 웨슬리는 개인적 성화를 사회적 성화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가르쳤으며 유사성을 지적했다.

중앙승가대 혜력 스님은 '도작의 안락집 연구'에서 도작 스님이 정토종의 대중화를 위해 어려운 성도문과 쉬운 정토문이라는 구분을 교판했으며 위경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현재 군부사로 활동하고 있는 원광대 김

갑영 박사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붓다의 설법시스템 연구'를 통해 설법이 다양한 용도에 적용 가능한 플랫폼으로 활용됨을 주목했다. 김 박사는 이를 토대로 설법이란 매개체로 중생이 자유를 얻는 등 불국토를 이루는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방대학원대 박사 남륜 스님은 '길장 찬 법화유의(法華遊意)에 나타난 사상체계 연구'를 통해 중국 삼론종의 개창 조사인 길장(549~622) 스님이 쓴 '법화유의'의 사상적 특징을 고찰했다.

남륜 스님은 길장 스님의 '법화유의'가 천태법화에 용해돼 고구려와 백제로 유입되고, 신라 원효 스님의 '법화종요' 성립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규명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화재 외에도 태풍·지진에도 대비해야”

김덕문 학예연구원, 문화재청 안전관리방안 세미나에서 주장

“단기적 자연재해를 분석한 결과 화재보다 태풍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많았다. 목조문화재 뿐만 아니라 석조 등 다양한 문화재의 개별 관리가 가능한 관리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덕문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은 9월 12일 문화재청이 개최한 문화재 안전관리 방안 세미나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한국 위기 문화유산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김덕문 학예연구관은 이날 2008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한 재해예방 기획연구 자료를 토대로 각 문화재별 개별 관리 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2008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한 재해예방 기획연구 자료에 따르면 목조문화재는 자연재해 발생 피해 447건 중 태풍, 홍수, 지진 등 단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94건 발생했으며 이중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석조문화재는 자연재해 619건의 피해 중 태풍, 지진 등 단기적으로 199건 피해를 기록했는데 지반재해가 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풍이 37건에 달했다.

김 학예연구관은 “그동안 재해에 대한



쌍계사 지진 당시 모습

위기 대응은 화재 위주로 진행됐으며 지진이나 태풍, 홍수에 대한 대응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지진은 근래 한국에서 눈에 띄는 피해 발생이 없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지 않고 있으며 홍수와 태풍 또한 그 피해가 광범위해 문화재 피해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학예연구관은 “1936년 지리산 쌍계사에서 발생한 진도 5.1의 지진은 대응전 지반과 진감선사 대공탑비 균열이 생기고 석탑 상륜부 복발이 추락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최근 이러한 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학예연구관은 “각 건물에 대한 보완 작업이 필요하며 재해 강도에 대한 개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노덕현 기자

“조선 사천왕, 신라 사천왕과 방위 다르다”

직지사 사천왕상서 조선 후기 방위 명시 목서 발견

조선 후기 사천왕상의 방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료가 김천 직지사 사천왕상에서 출토됐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각림)는 최근 직지사 요청으로 인한 사천왕상 및 천왕각 정밀학술조사 과정에서 천왕상의 머리 내부에서 ‘北方天王’, ‘西方天王’이 적힌 종이와 천왕상 몸체 내부와 복장마개에서 ‘東’, ‘東南’의 목서를 발견했다고 9월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천왕상의 존명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천왕이 들고 있는 물건 즉 지물(持物)이었다. 사천왕상의 방위는 통일신라에 제작된 석굴암 사천왕상에 의거해 비파를 타는 천왕은 동방천왕, 검을 든 천왕은 서방천왕, 용과 여의주를 든 천왕은 남방천왕, 탑을 든 천왕은 북방천왕으로 간주됐다.

최근 학계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상과 조선 후기 사천왕상의 존명이 다르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사찰에서도 사천왕상의 존명에 대해 혼란이 일어나는 상황이었다.

직지사 소조사천왕상 조사에서는 각 방위를 기록한 자료들이 3구의 천왕상에서



사천왕상 복장 목서

출토됐다. 직지사 소조사천왕상의 지물과 목서를 정리해 보면 아래의 사진과 같이 비파를 타는 천왕은 북방대문천왕(北方多聞天王)이며, 검을 든 천왕은 동방지국천왕(東方持國天王), 용과 여의주를 든 천왕은 남방증장천왕(南方增長天王), 탑을 든 천왕은 서방광목천왕(西方廣目天王)이다. 이는 조선 후기 사천왕상이 통일신라 사천왕상과는 다른 도상과 방위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주목된다. 직지사 소조사천왕상에서는 방위를 증명하는 자료 외에도 서방천왕상에서 강화4년(康熙四年; 1665년)에 작성한 조성기가 출토됐으며 ‘全羅道全州府東終南山松廣寺居僧人書員來造成之’와 ‘全羅全州松廣寺書員乙巳年(1665)三月日塗作也’ 등 목서가 사천왕상 내부에서 발견됐다.

노덕현 기자

학술·문화재소식

금강대, 도쿄대와 공동 주최 세미나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는 9월 25~26일 논산 금강대 사이버강의실에서 제2회 금강대·도쿄대학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불교의 수용과 전개-불교와 타종교의 대화’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 ‘석계론’에 나타난 구사론주 세친의 유가행파적 실재론(박창환/ 금강대) △ 신과 성전을 둘러싼 이종교간의 연합(이와사키 요이치/ 도쿄대학 대학원) △ 사본 파

손 부분의 복원: 하리바드라의 ‘현관장엄론’ 제1현관을 중심으로(이영진/ 금강대) △ ‘하타프라디피카’의 윤율구성(박영길/ 금강대) △ 법장의 이항대립적 사유의 연원을 찾아서(나카니시 토시히데/ 동대사화학연구소) △ 일본에서 신과 불-중국·한반도와 차이(미노와 겐료/ 도쿄대학) △ 니치렌의 신기론(지리요/ 도다이지(東大寺) 박사과정) 등 논문이 발표된다. (041)731-3114 노덕현 기자

동방대학원대, ‘불교문예연구’ 창간

동방대학원대 불교문예연구소(소장 차차석)는 최근 <불교문예연구> 창간호를 펴냈다.

이번 창간호에는 이종찬 동국대 명예교수의 ‘한국 선시의 특징’을 비롯해 △ 초의선사의 선다시와 마음치유의 시학(백원기) △ 백옥성의 선시 연구(진관 스님) △

‘화엄금사자장’에 나타난 연기 사상(신규탁) △ 현대 한국불교의 조직과 그 특징(차차석) △ 일제 식민시대 한국선불교의 정통성 투쟁(로날드 그린, 성원 스님) 등의 논문이 실렸다. 불교문예연구소는 연 2회 <불교문예연구>를 펴낼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사회연구소 사찰에너지 개선방안 세미나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9월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사찰에너지 사용 개선 방안과 지열에너지 활용 검토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류형규 박사(대림산업 기술개발)의 ‘친환경 에너지로서 지열에

너지의 현황’, 박성구 삼미비오테크 대표의 ‘사찰 맞춤형 지열 냉난방 시스템-원리 및 경제성 검토’ 등이 발표된다. 이어 청곡사 주지 정오 스님의 사찰 운영 사례와 김성실 LG전자 부장의 지열시스템 도입 사찰과 일반 사찰간 에너지 비용 분석이 이어진다. 노덕현 기자

한국민화학회, ‘민화와 불교문화’ 학술대회

한국민화학회(회장 정병모)는 9월 7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민화와 불교문화’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이 ‘민화의 성격과 불화와의 관계’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고승희 동국대 교수가 ‘조선 후기 불교회화와 민화의 모란화 비교 연구’란 논문을 통해 민화와 불화에서 공통적으로

그러지고 있는 모란화를 비교 고찰했다. 또 조수연(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씨는 ‘고려 후기 수월관음보살도와 조선 후기 민화의 달 표현’에서 고려수월관음도와 조선 후기 민화에 그려진 달토끼 그림을 분석했다. 수월관음도에는 민간설화인 달토끼 그림이 그려져 있다. 조수연 씨는 “이런 달토끼 표현은 이후 조선 후기 민화의 도상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선리연구원 제17차 월례발표회 공모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은 9월 30일 까지 제17차 월례발표회 발표논문을 공모한다. 발표 주제는 불교교학, 불교사학, 불교음악, 불교미술 등으로 발표자격은 박사과정 이상으로 제한된다.

발표분량은 A4용지 8매 내외로 이메일

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연구원 게시판의 논문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응모시 이력서 및 최근 2년간 연구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특선논문은 소정의 발표비와 함께 선리연구원 논문집 <선문화연구>에 게재 가능하다. (02)734-9653 노덕현 기자

금강경요해 金剛經了解

반야, 깨달음의 지혜로 밝힌 금강반야바라밀경 요해
금강반야, 깨달음의 지혜와 경계가 이 책 안에 있다.

- ♣ 아녹다라삼막삼보리 깨달음을 향한 소중한 지침서
- ♣ 깨달음의 경계와 자기 점검
- ♣ 반야지혜로 밝힌 금강경의 지혜세계
- ♣ 깨달음 세계가 이 책 안에 있다.
- ♣ 아녹다라삼막삼보리는 수행 성취의 지혜가 아니다.
- ♣ 무엇이 깨달음이며, 깨달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 ♣ 깨달음의 지혜 여래의 뜻을 밝힌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실체
- ♣ 일각요의(一覺了義)로 꿰뚫은 금강경요해
- ♣ 금강 실상과 부사의 공덕세계를 드러낸 지혜의 가르침
- ♣ 불지혜 최고최상의 깨달음, 아녹다라삼막삼보리 깨달음 경계는 어떠한가?
- ♣ 무위실상 일성원융 본심과 본각과 본성의 세계

이해하기 어려운 무위실상 불법과 아녹다라삼막삼보리 깨달음의 실체와 본심, 본성, 본각의 일성원융 법계를 금강경요해 강의의 인연으로 누구나 깊은 불법대해를 이해하고, 아녹다라삼막삼보리 깨달음에 들도록 금강반야바라밀 지혜와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수행 경계와 자증의 세계를 정성으로 세심히 살피어 깨달음과 불지혜를 향한 누구에게나 소중한 지혜의 가르침, 금강경요해 인연 공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상각 불지혜 청정한 믿음과 불법 실상과 청정본심을 깨달아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누구나 빠짐없이 성취하시기를 바라옵고, 자성불을 원만히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염원하며 발원합니다.

- 대구시 불국정토 세운스님 -

학계의
신간



신국판 / 456쪽 / 정가 25,000원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 법보시 주문은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한글 법화경

一大事 因緣



이 세상(三界)이 편환함이 없는 것은 마치 불난짐과 같으며, 많은 괴로움이 가득차서 가히 힘이 겹나고 두려우니라... 그 가운데 중생은 모두 바로 나의 아들이거늘... 오직 나 한 사람만이 능히 구원하고 보호 하느니라!

한글 법화경은 구마라집 한역 묘법연화경을 한글로 풀이한 경전이다. 법화경은 불성(佛性)인 참 생명의 영원실상을 명쾌하게 들어내어 인간의 상상을 뛰어 넘는 경전으로 대우주를 지배하는 최고의 힘 그 자체라 하겠다. 능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과 번뇌를 여의게한다. 우주와 같은 마음을 직시하고 법화경을 되풀이하여 읽고 쓰면 더욱 참 맛이 우러나오는데 영원한 생명의 노래가 된다. 매일 읽고 쓰게된 공덕은 불가사한 현상의 기적으로 실제 일어나 신비의 체험은 다반사(茶飯事)며 삼세제를 부처님의 축복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은 실천적인 생활불교의 이정표이며 신앙적이라 영험실화가 가장 많음을 알게 될 것이다.

중생이 본래 부처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라. 큰 법을 온세상에 널리 펴라. 법화 행자여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송월스님 옮김 / 신국변형판 / 584쪽 / 정가 20,000원